

“나눔은 자신을 내어 주는 기쁨”

28일, 「맑고 향기롭게」
부산 자선음악회 성황

법정스님 나눔의 기쁨 강연요지

요즘의 우리는 무언가 참지 못하고
인스턴트식으로 변해가고 있는 세태
인 것 같습니다.

오랫만에 음악을 들으니 그동안 내
감성에 퐁이 있던 녹이 술술 벗겨지
는 것을 느낍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이런 내용이 있
습니다.

“있고 없음은 서로를 낳아주고, 쉽
고 어려움은 서로 이루어지며, 길고
짧음은 상대를 드러내주고, 높고 낮
음은 서로 다하게 하며, 음과 소리는
서로 화답하고, 앞과 뒤는 서로 뒤따
른다”

즉 사물의 상관관계에 대해 설명하
고 있습니다.

모든것은 어느 한쪽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보완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물을 보는
동양의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존재는 독립된 개체로서 존
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지해 상
대와 함께 어울림으로써 존재의 의미
를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따뜻한 가슴·행복한 삶

눈에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원 공의 세계에 의해서 유지 존속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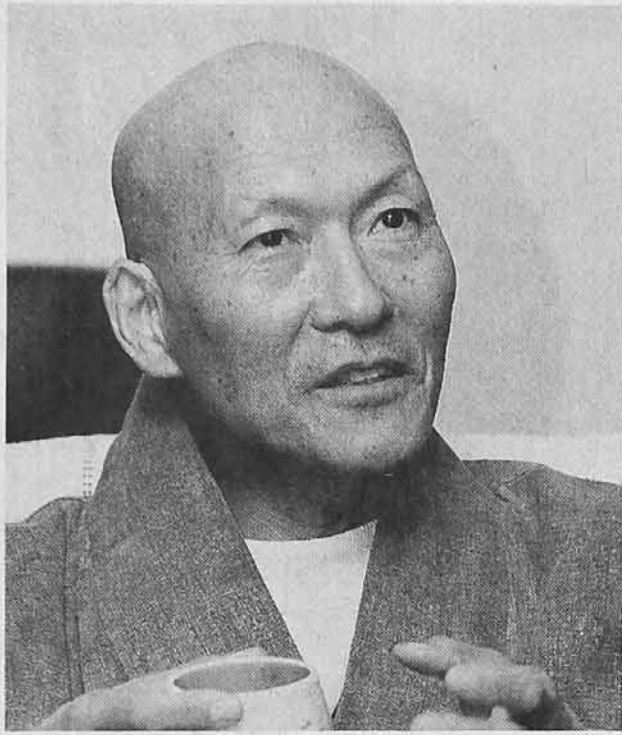
생명의 바다에서 보려는 부중불감,
불생불멸 즉 “불어는 것도 아니고
죽어는 것도 아니고 새삼스럽게 태
어나는 것도 죽은 것도 아니다”는 뜻
입니다. 단지 모양만 변할뿐 실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 내일이 떨어져 있지
않고 이어져 있듯이 우리를 한사람
한사람이 근원적으로 인간이라는 밧
줄에 서로 맺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
하자면 우리는 모두 연기라는 집체에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이웃의 도리는 따뜻
한 마음을 나눔으로써 불멸히 흩어진
개개인을 하나로 이어주는 길입니다.
이웃은 인연이 없는 타인이 아니라
곧 내 분신이고 뿌리이기 때문에 한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는 불행한 사람들이 해야
할 수 없이 많습니다. 내 자신은 불행
한가 불행하지 않은가 스스로 물어
보십시오. 우리를 가슴에 따뜻한 사
랑이 없기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아
무리 돈 많은 부자라도 불행해질 수
있으며 비록 가진 것이 없더라도 자
신의 삶을 맑고 넉넉하게 가꾸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따뜻한 가슴 없이는 그



부산=빅재원 기자

처럼 살면서 하루하루 자비심을 실천
하는 것이 종교를 신앙하는 사람들이
수행해야 할 과제요 화두이며 정진입
니다. 사람을 실천하는 일, 자비심을
이웃에게 마음껏 나누어 주는 일, 이
것이 바로 화두가 되어야 합니다.

자비를 나누는 화두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부모형제, 스승, 친구들은 말
할 것도 없고 남편 혹은 아내의 은혜
뿐만 아니라 공기와 물 흙 바람 등에
서도 많은 은혜를 입고 삽니다. 한 순
간도 없어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귀중
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귀한 존재들
을 아무 값도 치루지 않고 무상으로
받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중
한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해야 하는
가.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럽
히지 않고 그들로부터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되돌려 줄 수 있어야 하는
데 그것을 회한이라 합니다.

보시는 육바리밀 가운데 첫번째 실
천운리로서 삶의 안정이요 세상을 살
아가는 데 으뜸가는 덕목입니다. 왜
냐하면 서로 나누어 가지는 과정 속
에서 긴밀한 인간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생사윤회의 근본요인을 탐, 진, 치
삼독심이라고 하는데 이 탐욕에서 벗

사랑이 싹트는 순간 우리는 다시 태어나

사랑하는 따뜻한 가슴
없이 그 어떤 위대함
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
다. 우리는 본래부터 따
뜻한 가슴을 간직하고
있는 데 다만 열리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그
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
에 살아 있는 모든 유
정, 무정들에게 가슴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어떤 위대함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
다. 우리는 본래부터 따뜻한 가슴을
간직하고 있는 데 다만 열리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살아 있는 모든 유정, 무정들
에게 가슴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가
슴을 열어 놓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들과
어떠런 상관도 없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따뜻한 가슴에서 싹
트는 순간 우리는 다시 태어납니다.
이것이 진정한 탄생이며 생명의 신비
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애정이나 따뜻한 마
음을 지니고 있다면 그들을 행복하게
할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내적인 경
화도 함께 가져옵니다. 무언가를 위
해 헌신적인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자
체가 거룩한 것입니다.

종교란 무엇입니까? 더 말할 것도
없이 선량한 감정입니다. 흐르는 강물

어 내려면 먼저 나누어 가질 줄 알아
야 합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눈
에 보이지 않는 것을 나누는 과정 속
에서 보다 넉넉한 세계를 지닐 수 있
고 지혜와 자비의 싹이 터서 꽃이 피
어납니다.

가진 것을 베풀 때 그것은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베푸는 것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기쁨
이 바로 보살입니다. 또한 고통으로
마지못해 베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고통과 마지못해 실천하는 것이
그들의 보살입니다.

그러나 베풀고 고통도 모르고 기쁨
도 찾지 않으며 덕을 행한다는 생각
조차 없이 무심히 베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무주상보시를
행하는 이들입니다.

무주상 보시로 나누며 사는 사회를
다함께 가꾸어 갑시다.

만 화

법구경

정진(不放逸)의 장
부지런함은
감로의 길이요

이 람 원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고 내새끼들 왔구나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힘드시지요?
세상에 힘 안드는 일이 어디있나

저희들이 편히 모실텐데 농사는 그만 두시고...
무슨 소리
육신이 멀쩡한데 일을 그만 두라니
또 내 평생 농사 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도회지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아버님! 이런 일을 해도 좀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일을 하다니?

계초제를 뿌리거나 파종할때 비닐막을 띄워 놓으면 김매는 수고는 덜잖아요
나는 계초제 씌가며 김매는 시간 절약해서 다른 일 할것도 없다
누가 일을 더 하신다는 겁니까
좀 쉬엄쉬엄 편히 일하시는 것이 좋다는 말이죠
어허! 이사람!

넌 아직도 모르느냐?
공해 식품이다 뭐다 난리인데
그소리는 뒷전에서 흘러들니?
모든게 좀 더 편해 보시고 머리쓰게 이지경 이니나
화학비료 쓰고 계초제 뿌리고 심종제 쏘아 부고

편하게 일해 수확량이 거두면 덩치가야 돈 벌이 좋겠지
그런 다음에 오는것은 뭐냐?
망측이고 사람죽이는 일밖에 뭐가 있겠어
부지런 함은 감로의 길이요 게으름은 죽음의 길이다 부지런한 사람은 죽지 않지만 게으른 사람은 죽은거와 마찬가지로

할아버지 이거 그냥 먹어도 돼요?
안, 안 되고말고
흙이나 안물었는지 잘 닦고 먹으려나
와 너무나 맛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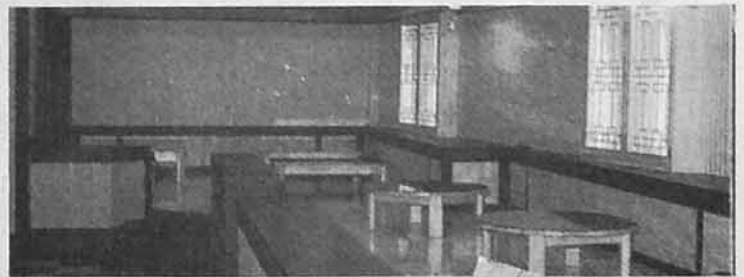
어떻게 사람은 거지 부지런해야 한다
명심 하겠습 니다
올때마다 이렇게 가지고 가기만 해서...
그렇게 가지고 가는것 보는데 우리 즐거움이야
이와 같은 현자들은 생각을 깊이하고 참을성 있고 항상 부지런히 정진하여 최상의 평화인 열반을 얻으리라

녹수청산

공간 가득

그윽한 정취가 있습니다. 정겨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禪茶一如의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녹수청산은 특유의 비법으로 한발 약자를 달이고 시리산 수제 녹차만 제공합니다.



녹수청산은 신형회 모임이나 소범회 모임을 갖고자 하는 불자들을 위하여 따로 별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녹수청산에서는 청파 이은구 선생의 고급 분청지기를 전시·판매하고 있습니다. 품격 높은 차문화를 즐기시려는 분들이나 단체·기업 홍보를 위한 특별 주문을 받습니다.